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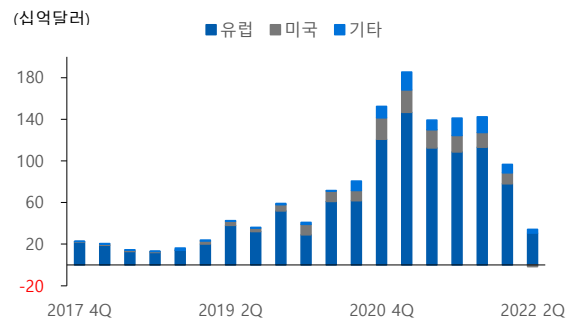


2022년 기관투자자 투자트렌드(요약)

1. 성장통 겪는 ESG

-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환경과 자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2020년 이후로 ESG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
- ESG 투자가 늘어나면서, 그린워싱·고비용·ESG 평가기준 등으로 ESG 투자에 대한 반대도 커짐
- 기관투자자들의 ESG에 대한 의지는 흔들리지 않고 있음. 현실적인 여러 문제로 ESG가 성장통을 겪고 있으나, 어려움을 이겨낼 것으로 보임.

지속가능펀드, 작년 하반기부터 자금 유입 규모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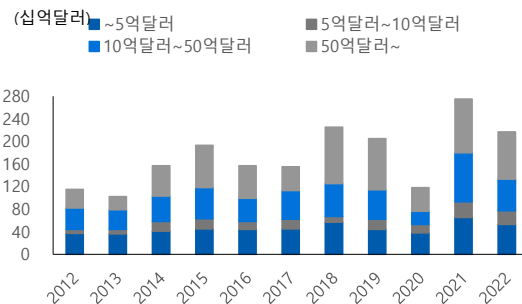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다양해지는 대체투자

- 우리나라 기관투자자들이 향후 확대하려는 투자자산은 기존 자산과의 분산효과와 수익률 제고 등의 이유로 해외자산과 대체자산인 경우가 많음
- 2022년은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M&A 등 대체투자 거래가 줄어들었음
- 벤처캐피탈과 금리 인상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 Private Debt, 에너지 가격 인상에 유리한 영향을 받는 천연자원 등은 투자 분위기가 다른 분야에 비해 양호

상반기 글로벌 M&A 추이를 보면, 2022년은 전년보다 부진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성장통 겪는 ES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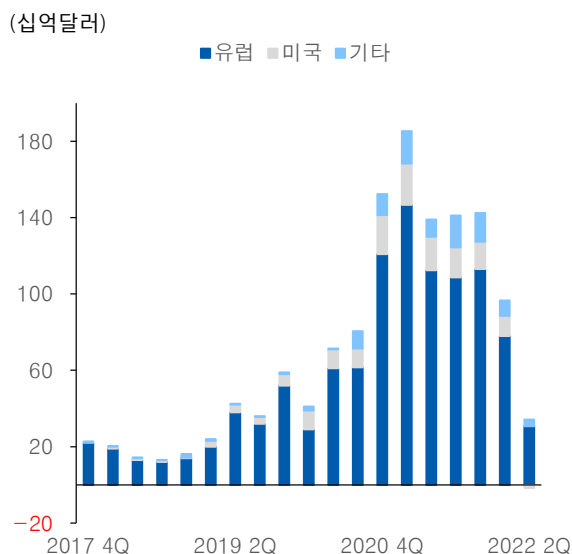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환경과 자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2020년 이후로 ESG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전기차, 에너지 전환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들이 유럽과 미국 등에서 확대되었으며, 기관투자자들도 ESG에 바탕을 둔 투자 결정이 시스템화되고 있다.

ESG 투자가 늘어나면서, 그린워싱·고비용·ESG 평가기준 등으로 ESG 투자에 대한 반대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 파괴 문제로 ESG는 과거로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유럽의 에너지 위기, ESG수행에 따른 고비용은 기업에 비용부담을 가져오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한시적으로 ESG 정책에서 후퇴하고 있다. 회계 기준 등의 ESG 반영에 대해서도 여러 갈등이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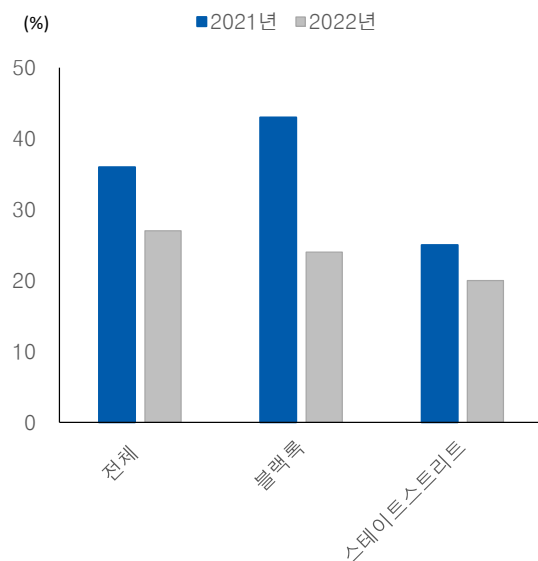
ESG 투자 확대는 정부와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역할이 컸으며, 기관투자자들의 ESG에 대한 의지는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다. 현실적인 여러 문제로 ESG가 성장통을 겪고 있으나, 어려움을 조정하면서 향후에도 전세계 사회 패러다임으로 성장할 것이다.

[차트1] 지속가능펀드, 자금 유입 규모 감소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글로벌 자산 운용사의 ESG 주주 제안 지지율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다양해지는 대체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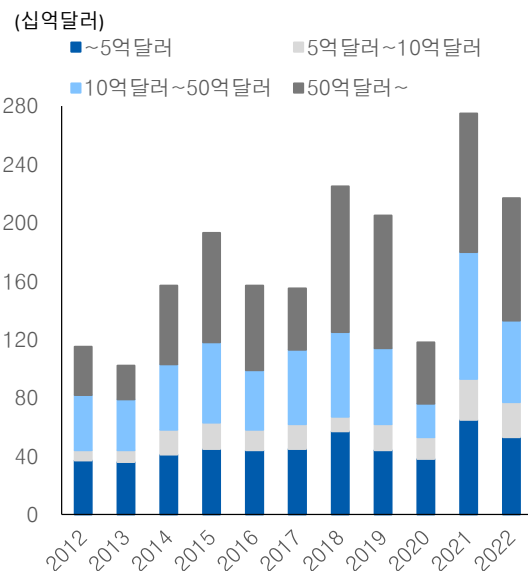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에는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등 거의 모든 분야의 대체투자 부분의 거래가 급증하였다. 상반기 기준 글로벌 M&A 거래 건수와 규모를 보면, 2021년의 거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2022년은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M&A 등 대체투자 거래가 줄어들었으며, 2022년 하반기에도 M&A 등 Private Equity 축소 경향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리 상승으로 M&A, Private Equity 등이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벤처캐피탈 투자는 다른 대체자산군에 비해서도 장기간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기대 수익률이 다른 자산에 비해 높다. 해외의 기관투자자들은 미래 전략자산으로 벤처캐피탈을 늘리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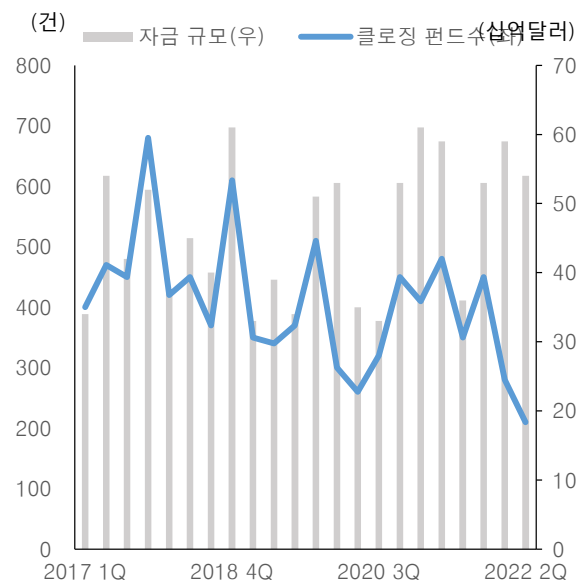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장기투자인 벤처캐피탈과 금리 인상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 Private Debt, 에너지 가격 인상에 유리한 영향을 받는 천연자원 등은 투자 분위기가 다른 분야에 비해 양호

[차트3] 상반기 글로벌 M&A 추이를 보면, 2022년은 전년보다 부진 .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연말까지 글로벌 벤처캐피탈 클로징 펀드수와 결성된 펀드 규모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